2. 뱅-빈두 아우 포르투(Bem-vindo ao Porto)

비행기를 타고 가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번 생일 여행에서 스페인에 이어 포르투(들어보니 포르투갈 원어 발음이 '포르투' 에 가까워 이제 '포르투' 라 하기로 했다)를 여정에 넣은 것은 어쩐지 덤이고 예쁜 선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정말로 가보고 싶었던 곳은 스페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짜내어 제한된 시간 내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었다. 우리의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여행은 더없이 만족스러웠지만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일정으로 빠듯했고 피곤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 위에 중간중간 톨레도와 몬세라트까지 갔다 왔으니 정말 강행군이었다.

포르투로 날아가는 이 시간은 뭔가 느긋하고 달콤했다. 스페인으로 간 김에 포르투갈에도 가 보기로 했을 때 내 머리 속에 수도 리스본은 떠오르지도 않았고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포르투로 가기로 결정했었다. 포르투는 내 마음 한구석에 어여쁘게 반짝이는 조그만 보석 같았기 때문이다.

포르투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14 – 15 세기 스페인/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를 열었던 중요한 항구도시라는 것과 도우루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강이 흐르는 곳이라는 것 그리고, 달콤하고 향기로운 포트 와인의 원산지라는 것 정도였다.

그러나 포르투에 대한 나의 생각은 지식보다 감성적 접근에 더 가까웠다. 언젠가 어느 여행사 사무실 유리 문에 붙여 놓은 포르투 관광 포스터를 본 적이 있었다. 파스텔 색채의 집들이 서 있는 바닷가 절벽 언덕에 사람들이 물가로 내려가 수영을 하고 배를 타며 여름 한때를 보내고 있는 시원하면서도 아름다운 포스터였고 한가운데 옆으로 둥글게 굴린 하얀 글씨체로 'Porto' 라 씌어져 있었다. 옛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순박한 곳 그리고, 자연과 인간미가 살아 있는 곳이라는 느낌이 전해져 왔고 그것은 그대로 내 마음속에 포르투에 대한 이미지로 남았다.

약간 엉뚱한 이유도 있었다. 26세에 요절한 안톤 옐친이라는 영화배우가 있었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작품이 '포르투(Porto)' 라는 독립 영화였다. 안개와 비에 젖은 포르투를 배경으로 젊은 남녀의 사랑과 방황을 그리려 했으나 영화 제작이 끝나기 전에 옐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줄거리의 진행보다 포르투의 풍경과 분위기 묘사에 치중해 만든 영화로 유명했다. 영화 내내 어둠과 안개와 비가 계속 되는데 을씨년스럽지 않고 오히려 포르투라는 항구도시의 서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인상깊게 보았다. 옐친의 마지막 작품 배경이 되었던 곳을 보고 싶다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가진 낭만적 도시에 꼭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라이언 에어 비행기는 포르투 상공으로 접어 들었다. 아래에 막막한 바다가 보이고 하얀 파도가 거칠게 부서지고 있는 해변이 보였다. 하늘에서 보아도 이곳은 때묻지 않은 곳이라 느껴지는 것이 신기했다. 해변 옆으로 펼쳐진 포르투시의 모습은 짙은 녹색 사이로 빼곡하게 들어선 붉은 지붕들과 하얀 벽 건물들의 연속이었다.

우리 비행기는 12시 정오 무렵에 프란시스쿠 드 사 카르네이루 공항(Francisco de Sa Carneiro Airport)에 무사히 착륙했다. 입국 수속이 간단히 끝나고 R 과 나는 한산한 공항 안으로 걸어 나왔다. 콧소리가 심하게 섞인, 불어와 스페인어가 혼합된 듯한 포르투갈어가 간간히 귀에 스쳐 지나갔다. 공항을 빠져 나가기 직전 크고 하얀 벽에 붉은 드로잉으로 도우루강 다리 밑으로 돛배가 지나가는 그림이 나왔다. 역시 붉은 글씨로 심플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뱅-빈두 아우 포르투(포르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써 있었다.

메디케어 보험 uniti 처방약 보험

- 65세가 되셔서 Medicare Part A & B을 받으신 분들 (신규 가입자)
- Medicare에서 커버 못하는 20%의 혜택을 위한 보조보험 (Supplemental 보험)
- 현재 가지고 계신 HMO가 불편하신 분
- 타주나 해외에 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
- 타주 혹은 다른 카운티에서 이사오신 분
- 직장보험이 끝나서 메디케어 Part B를 신청하신 분
- 메디칼에서 중단된 BENEFIT을 계속 원하시는 분
- 메디칼 메디케어를 모두 가지고 계신데 자동 HMO에 가입되신 분
- Part D (약보험)

(714)906-4475
CA LIC #0G07155
한 은 주
메디케어 엘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유니티 • 종합보험

JOY 핸디맨 & 플러밍

물 새요...
연락주세요.
제이김
24 시간
714.249.5469

"펜데믹으로 영향을 아주 크게 받았죠. 수입이 줄어들어서 수지를 어떻게 맞춰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한테 필요한 기본적인 생필품은 충분하다는 걸 알아요.

Tom, San Diego

500만 이상
캘리포니아 내 5백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P-EBT로 식품 지원을 받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여기를 스캔하세요

P-EBT CDSS 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ca.p-ebt.org에서 P-EBT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세 요.